

# “성공은 땀과 정성으로 쌓아올리는 거죠”

## 안도현의 20년 인기 맛집—쌀천국밥집 주인 손춘자의 창업이야기

안도현 명월진 명월거리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명월거리라는 이름보다는 이도우제(一条街)라는 부름으로 더 가깝다. 지난 2000년대초, 안도현이 현성 도시구역 확장과 새로운 음식 문화관광거리를 조성하면서 생겨난 명월거리는 현재 안도현의 중요한 상업봉사 중심거리로 각광받으면서 각종 음식점종류가 즐비하게 들어서었다.

명월거리에는 허다한 특색 음식점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안도현 광명향 고대촌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현성에 올라와 음식점을 꾸려 근방에 소문 높은 손춘자(71세) 가족이 경영하는 ‘쌀천국밥집’이라는 친근한 이름의 음식점도 있다.

“맛 그대로”와 “정성과 믿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쌀천국밥집은 요즘같은 음식점종의 치열한 경쟁과 불황 속에서도 안도현의 유명 맛집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손님들이 즐겨 찾는 단골 음식점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3월 11일, 기자가 취재간 날도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음식점을 많이 찾았다. 런이 밀려드는 식객들 때문에 주방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돌아치는 손춘자를 점심시간이 이윽히 지나 손님들이 뜬해져서야 마주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음식점이 이렇게 흥성흥성한가부터 물었을 때 손춘자는 “맛 그대로”와 “정성과 믿음”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다. 알고보니 ‘맛 그대로’와 ‘정성과 믿음’이라는 슬로건이 쌀천국밥집의 성공 노하우가 되기까지는 20년도 넘어되는 손춘자의 파란만장한 창업 회로에락이 깃들어있었다.

지난 세기 90년대말, 아들딸 두 남매의 미래를 위해 농촌에서 명월진으로 이사와서 제집만 해도 9번이나 옮기면서 힘들게 살던 시절이 있었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손춘자였지만 농촌에서 농사 짓고 굴암퇴지를 키워 팔면서 아글타글 모아두었던 만원이 넘는 돈을 해외로 무사기와 남편의 출국 수속에 써버렸고 금방 결혼한 딸 안미란도 얼마 안되는 월급으로 살다 보니 생활형편이 어려웠다. 손춘자가 딸의 권유로 함께 명월진의 40평방미터도 되나 마나한 가게를 세내 자그마한 김밥집을 꾸린 것은 지난 2004년의 일이었다.

김밥 한줄에 5원씩 하던 때였는데 개업 첫날 매상고 70원을 올렸다. 비록 많은 수입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벌어나가노라면 치부의 희망이 보일 듯도 싶어 힘이 나고 너무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기뻛다고 손춘자는 개업 첫날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했다고.

그의 예견은 틀리지 않았다. 안도현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김밥집이고 음식에 정성을 기울이고 바리다매여서 매상고가 꾸준히 상승했던 것이다. 김밥집을 하는 1년여 시간 동안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다. 하루 두시간도 채 못 자면서 일했다고



▲ 20년 인기 맛집인 쌀천국밥집의 주인 손춘자

한다. 100근이 넘는 체중도 80근 밖에 안될 정도로 많이 내렸다.

삼륜차비 2원을 아끼려고 시장에서 음식재료를 무겁게 구입하고도 그걸 손에 들고 힘겹게 돌아오곤 했다. 한 푼 두푼 그렇게 아끼고 모으면서 절약을 일삼았다. 한줄에 5원 밖에 안되는 김밥을 팔아 단 하루에 최고 2,000원의 매출까지 올렸으니 얼마나 힘들고 드바랬을까?



▲ 남편, 아들며느리와 함께

김밥집에서 일정한 경제적 밑천을 장만하게 되자 2006년 3월부터 명월 거리에 세를 맡고 자리를 옮겼다. 지금은 명월거리가 음식점이 즐비한 안도현의 이름난 먹자거리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안도현에서 새롭게 조성한 거리 음식점이 두집 밖에 없었다. 그렇게 황폐지나 다름없는 새로운 창업의 터전에 첫 삽을 박은 쌀천국밥집이 지금은 안도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인기 음식점으로 성장했다. 2013년 도에는 세를 맡은 옆집을 100만원에 구입해서 합친 후 음식점 규모도 더 늘었다. 무겁게 내리누르던 수만원의 빚도 5년 넘게 일해서 모두 물었다.

40평방미터 되는 작은 김밥집으로부터 시작해 200평방미터가 넘는 인기 음식점으로 키우기까지 손춘자는 ‘맛 그대로’와 ‘정성과 믿음’을 기울인 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손춘자가 말하는 ‘맛 그대로’는 제집 음식처럼, 농촌에서 먹던 대로 음식재료의 신선도와 질을 보장하면서 지나친 조미료를 쓰지 않고 음식 본연의 맛과 순수함을 고집한다는 데 있다. 의외로 사람들은 너무 기름지고 맛이 진한 음식보다는 순수하면서도 담백한 집밥 음식을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정성과 믿음’도 중요했다. 질이 차한 남새나 녹거리 음식재료는 쓰지 않고 상에 올렸던 음식은 다치지 않았더라도 재료를 하지 않고 아낌없이 버렸다. 모든 장사가 그러하지만 음식 장사는 특히 랑심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식외에도 손님들에게 보여준 ‘믿음’ 역시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로 남아있다. 한번은 손님이 식사한 후 가방을 두고 갔는데 그 가방에 돈 2만원이 들어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

었다. 손춘자는 자신은 물론 음식점의 종업원들에게도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믿음을 직접 몸으로 실천해보이며 고객들과의 따뜻한 믿음의 이야기를 엮었다.

쌀천국밥집의 종업원들과도 믿음으로 일관했다. 종업원들에 대한 손춘자의 따뜻한 믿음과 살가운 대우에 많은 종업원들은 10년 이상 머물면서 함께 가족처럼 일하고 있다.

“성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땀과 정성으로 쌓아올리는 거죠. 노력 없는 대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성공이 허망 떨어지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 끈질긴 노력과 피땀의 결과이지요. 농촌에서 태어나고 농촌에서 자란 저는 부지런히 일할 줄밖에 모릅니다. 부지런하면 반드시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지나온 인생사를 추억하면서 손춘자는 더는 물려설 곳이 없으니 가족 모두 합심하여 이를 악물고 일했다고 말했다. 그런 매일매일의 노력과 정성이 바로 오늘날의 인기 음식점을 만든 손춘자의 비결이요, 노하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손춘자는 올해 이미 70세를 넘었다. 지금은 음식점 경영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맡겼지만 항상 주방에 붙어있다. 아들며느리가 시름 놓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년간 일하면서 굳어진 습관으로 가게에 나와 있어야만이 시름

이 놓이고 마음이 즐겁기 때문이다. “제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쓰면 아마 두툼한 책이 나올 겁니다.” 손춘자가 감개무량해서 하는 말이다.

작은 식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의 브랜드 음식문화를 이루어내기까지 손춘자는 20여년간 정직과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고부려려하는 창업 이야기를 써냈다.

손춘자의 20년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정직과 근면이 빛낸 지속가능한 경영의 교과서이다. 그는 값 비싼 마케팅 대신 손님 한명 한명의 입소문에 의지했고 이는 오늘날 쌀천국밥집이 명월거리의 인기 브랜드로 성장한 결과로 이어졌다. 70세가 넘는 지금도 주방에 서며 ‘부지런함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젊은 창업자들에게 과정을 소중히 여길 것을 당부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 더 나아가 쌀천국밥집은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지역 음식문화의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손춘자의 창업이야기는 결국 ‘진정성 있는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작은 김밥집으로부터 시작한 창업의 꿈이 어떻게 지역의 음식 브랜드와 자부심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안상근 김파 기자



##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 한국 류학생 입학 성대히 환영



3월 15일, 7명의 한국 국적 류학생이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에 새로 입학한 가운데 그들을 맞이하는 입학 환영 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목단강시 외사국 4급 조사연구원 윤경현, 교육국 4급 조사연구원 손동휘, 대외교류과장 양화, 교육국 사무실 부주임 리호우, 학교 지도부 성원, 신입 류학생 학부모, 재학 류학생 대표 및 담임교원 등이 참석했다. 환영식은 학교 학생처 부주임 리명주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는 목단강 지역 최초로 외국인 중학생 모집 자격을 취득한 성급 시범학교로 중국어·조선어·영어·일어 4개 언어 교육을 특화하며 동북아지역 및 우수한 교사진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색 강화, 브랜드 창출, 벤치마킹’이라는 운영 철학 아래 지금까지 한국, 일본, 로씨야, 스위스, 독일 등 국가에서 온 150여명의 류학생을 배출했으며 동북아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대륙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 대외교류기지 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교육에는 국경이 없고 함께 미래를 창조하자’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학교 덕목부교장 전경화는 학교를 대표하여 신입 류학생들에게 따

뜻한 환영을 표했다. 목단강시교육국 4급 조사연구원 손동휘는 학교의 국제화 학교 운영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으며 연설에서 신입 류학생들에게 빨리 캠퍼스 생활에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중외 문화 교류의 대사가 되라고 격려했다. 행사중 학교 예술단의 조선족 전통 무용, 악기연주 및 류댄스 등이 선보여 중국 문화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특히 ‘1대1 편지 교환’ 코너에서는 재학생과 신입 류학생들이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며 유대감을 다졌다. 교육국 관계자들은 신입 류학생들에게 학습용품을 증정하며 그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표했다.

행사후 신입 류학생과 학부모들이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여 학교의 교육시설, 문화활동 및 생활보장 등을 료해하고 학교의 교육 기반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환영 행사는 신입 류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동시에 학교가 중외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국제적인 교육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강점을 발휘하여 글로벌 시야를 가진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계획이다. /홍국강신문

## 연변대학, 박결의학교육엘리트발전기금 기증식 개최

3월 12일, 연변대학은 박결의학교육엘리트발전기금 기증식을 개최했다. 연변대학 당위 서기 두에, 부교장 왕홍복 및 커시안그룹 회장 박결 등이 활동에 참가하고 왕홍복이 사회했다.

두에는 학교를 대표하여 커시안그룹의 장기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2012년부터 이 그룹은 학교의 건설을 위해 여러번 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금의 설립은 ‘쌍일류’ 건설, 의학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사회발전전에 조력할 것이라며 학교는 자금의 사용을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의학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결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책임을 담당해왔는데 이번 기금은 국가건강전략을 락착하는 동시에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실천이다. 기금은

첨단의료인재 양성, 해외 의학인재 도입 및 첨단의학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향후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이다.

왕홍복은 커시안그룹이 이번에 400만원을 기증하여 설립한 기금은 5년에 걸쳐 실시 (매년 80만원 기증) 된다고 소개했다. 도예와 박결이 현장에서 협의에 서명하고 기증을 완료했다.

이어서 진행된 운동건강기계 기증식에서 커시안그룹은 연변대학 및 연변주에 319만원 상당의 골프운동기계 1,210대를 기증하여 연변지역 체육교육의 발전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기증은 학교와 기업의 협력 분야를 가일층 확장하고 고등교육과 사회발전전에 조력하는 기업의 책임담당을 보여주었다. /인민넷 - 조문판

## 도문시 ‘의무교육 량질균형발전현’으로

3월 19일, 도문시교육국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의무교육 균형발전현(시, 구) 명단에 길림성의 두 현(시)이 선정되었는데 그중 도문시는 연변주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현(시)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관련 요구 및 규정에 따라 현금 자체 평가, 시급 초기 심사, 성급 평가, 품질 모니터링, 사회 인지도 조사, 모니터링 플랫폼을 지표 심사, 조사연구 및 검증평가 등 국가 감독평가 인정 절차를 거쳐 교육부는 188개 현(시, 구)을 2024년 의무교육 량질균형발전현으로 인정했는데 도문시가 그중

하나에 선정되었다.

최근 몇년간 도문시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발전을 고수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아 공평하고 질 높은 분투목표를 설정하고 량질, 균형적 추진 메커니즘을 완비했으며 정책자금 보장을 강화하고 학교 우수 확대 및 품질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작지만 아름답고 작지만 운치가 있으며 작지만 정교한’ 변경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따뜻하고 행복하며 량질의 균형적인 의무교육 ‘도강(圖強)’의 길을 개척했다. /인민넷



▲ 쌀천국밥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들